

## 《터널》, 한 편의 재난 영화가 끝날 때\*

/ 강승 편집위원



2016년, 영화 《터널》이 개봉됐다. 자동차 영업사원인 하정우(이정수 역)는 갑자기 무너진 터널에 갇힌다. 언론은 한날 흥밋거리로 사고를 다루고, 정부는 무능하거나 우스꽝스럽다. 갇힌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안에서 사투를 벌여 나간다. 사고의 원인은 공사에 쓸 돈을 접대비로 쓴 것 따위로 인한 부실 공사

---

\* 이 글은 초고의 형태로 지난 8월 《오마이뉴스》에 「정작 중요한 건 비껴간 《터널》, 교묘하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바 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236181](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236181).

로 판명되고, 구조는 계속 실패하고 만다. 그러는 사이 주변 터널 공사  
사의 이해관계 충돌을 비롯해 여러 사건이 있게 되고 실종자 구조는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실종자 하정우의 클릭  
슨 소리와 그걸 듣게 된 구조대장 오달수(김대경 역)의 책임감 있는  
행동 끝에 하정우는 구출된다.

이렇게 《터널》은 재난,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신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영화 《괴물》 이후 일반적인 소재이지만, 이 영  
화는 우리 사회의 좀 더 특별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 《터널》, 부정할 수 없는 유사성

이미 많은 이가 지적했다시피,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난 참사들,  
특히 하나의 사건의 영향을 받았음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첫  
장면은 상징적이다. 답답한 구도에서 작은 구멍으로 물이 흐른다. 여  
기서 관객은 일어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구조되지 못한 채 물이  
차올랐던 비극적인 사건을 연상하게 된다.

언론과 정부에 대한 풍자도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표명되는 정  
부의 걸치레 대처와 언론의 자극적인 취재 속에서 우리는 참사 이후  
매번 제기된 언론과 정부에 관한 수많은 비판을 상기하게 된다. 여기  
서 많은 이는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이 사건이야말로 2013년에 발표된 원작  
소설 《터널》과 2016년 개봉된 영화 《터널》 사이에 생긴 차이의 원인

일 것이다.

### 《터널》이 지운 것, 《터널》이 기억한 것

바로 그 유사성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적잖은 사람은 《터널》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들을 연상시키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비판한다. 정부나 언론에 대한 비판이 풍자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사회적인 영화가 된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회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이 사회의 한계 역시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실종자인 하정우를 구출한 것은 누구인가? 실종자인 하정우 자신이라고 답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재난을 만나도 그저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세계를 마주한다. 구조대장인 오달수의 책임감이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작은 영웅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영웅이 중심이 되는 구조의 영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구조대나 구조대장의 사투를 비롯한 능동적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화 속에서, 정부와 사회가 계속 하정우 곁에 ‘땀도도록’ 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바로 그 ‘우리’에 있다. 이 영화에서 ‘우리’, 어쩌면 관객이자 시민의 은유는 ‘재난 관련 방송의 시청자’ 혹은 ‘절

반이 넘게 찬성한 구조 포기(터널 공사 찬성) 여론조사의 표'로만 등장한다. 영화는 재난이 일으키는 정치적 상황과 시민들의 행동이라는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실종자의 아내인 배두나(세현 역)가 구조 포기, 즉 터널 공사에 동의해 버리게 될 때 일어난 일들이 있다. 첫째로 구조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둘째로 (아마도) 반전된 여론조사 결과다. 이것은 다시 말해 터널 공사 재개, 즉 구조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화는 그 공적인 과정을 대부분 생략했으며, 이 정치적 결정이 매우 사적인 형태로 집행되는 것만을 보여 준다. 실종자인 하정우가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클래식 라디오 방송뿐이다. 이 방송에 아내인 배두나가 직접 나와서 사회가 하정우를 버렸음을 선언한다. 그리고는 스튜디오를 나서게 되고, 방송국의 직원들은 무관심하게 쳐다보거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한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문제가 고유하게 공적인 것이 되기를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정한 시민들과 그들의 이기적인 여론을 비난해야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재난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한 보수주의적 반응이다. 원작 소설이 그러한데, 원작 소설의 경우 실종자 가족은 악플과 같은 대중적 냉소에 시달리게 된다. 실종자와 그 가족은 사회에서도 실제적으로도 말 그대로 매장되고, 모두 자살로 삶을 끝맺는다. 이것은 시민들 혹은 인민들people이라고 불리는 이들,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주체들에 대한 공포를 대변한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판본을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군중들이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 놓고 지금은 싹 다 잊었다는 등, 그것은 모두 위선이라는 등 하는 담론들. 어쩌면 ‘일베’의 회원들이 세월호와 관련된 죽음을 모독할 수 있었던 것은 꼭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 시민’ 이어서가 아니라 그 정치적 시민들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공포와 냉소를 은밀히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담론 속에서 우리가 기껏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나 각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감 따위뿐이다. 즉 군중은 골치거리일 뿐이며, 체제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해 정부나 언론 등의 자체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그러한 냉소 대신 하나의 장면을 주요하게 제시한다. 터널 공사를 위한 공청회가 그것이다. 터널 공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발제를 듣고 있던 구조대장인 오달수는 공청회 앞줄의 패널리 아님에도 갑자기 소리쳐 말한다. 터널 안에 “사람이 있다”고.

영화에서 정부나 언론은 구조 과정에서 농담의 소재가 될 뿐이지 주요한 방해자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결국 체제 내부의 근본적 모순에 기생한다. 인간의 구조와 신도시로 향하는 터널 공사라는 ‘이해관계’의 정면충돌. 이 모순은 질문한다. 사람인가 개발의 경제적 이익인가? 비록 영화는 그 대립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립을 내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윤보다 인간이다”

우리는 분명 이 대립을 기억한다.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개발 이익을 집행하러 온 공권력에 대해 철거민이 외치던 절박한 말. “여기 사람이 있다.”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약 두 달 후에, 청와대로 가는 총리 공관 앞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 역시 그 대립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윤보다 인간이다.”

영화가 지닌 한계 또한 여기서 다시 드러난다. 첫째, 영화는 그 대립을 구조대장인 오달수 한 명의 책임감으로밖에 보여 줄 수 없었다. 둘째, 영화는 그렇기에 그 대립을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대장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는 우연한 사건으로 해소해 버렸다. 구조대장인 오달수는 구하러 가기로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혼자 내려갔다가, 우연히 실종자인 하정우가 절박하게 누르는 클랙슨 소리를 듣고 그를 구조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자. 이 영화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 참사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원작 소설의 결말처럼 실종자인 하정우는 그저 잊혀 사망할 수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 영화에서도 클랙슨 소리 이후에 구조대원들이 도달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실종자인 하정우의 모습은 다시 나오지 않으며, 구출 장면에서도 하정우는 마치 ‘시체처럼’ 묻혀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영화의 다른 편집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영화를 하정우의 구출 모

습에서 갑작스럽게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죽었다고 상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삶이 있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그곳에 죽음이 있더라도 내려간 이(구조대장)와 자신의 존재를 잊으려는 사회에 맞서 필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한 이(실종자)에게 어떤 숭고함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죽음을 선고하려고 한 이들, 결국 죽음을 ‘성공’ 시킨 사회를 대비시키면서 말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기억은 도저히 그러한 종류의 결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구조하지 못한 이들, 그래서 심지어 시신조차 물으로 올라오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결말은 참을 수 없이 적나라한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금기는 우리 사회의 현재적 한계점에 닿아 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실제 존재하는 참사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마지막 장면은 그 외면에 썰기를 박는다. 구조된 실종자인 하정우는 매몰 당시에 유일하게 주파수가 잡혀서 듣게 된 클래식 채널 덕에 ‘쇼스타코비치’라는 이름을 쉽게 맞춘다. 그리고는 터널을 지나며 약간의 두려움을 호소하다가, 이내 그냥 지나친다. 우리는 재난 이후의 트라우마를 이 영화처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으며, 재난 속에서 개인이 얻은 것은 클래식 작곡가 이름과 같은 경험 이 전부다. 그 밖의 것들은, 재난을 임의적으로 ‘끝내 버린’ 사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닐까?

## 영화가 재난을 끝낼지라도

얼마 전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특별조사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을 한 바 있고 유가족들도 단식을 이어갔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국가와 사회의 배신에 대한 수많은 사람의 분노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 중 하나가 특별조사위였다. 그리고 그것 또한 무력하게 끝나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두 거대 야당은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떡해야 하는가. 참사도, 한 편의 재난 영화도 그냥 끝내 버리려는 상황에서 말이다. 영화와 사회가 같은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영화에 없는 부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영화 《터널》에게는 없는 기억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던 그 기억 말이다. 우리는 이윤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는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만약 참사 이후 해결된 것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세계는 여전히 재난 상태일 것이다. 실제로 이윤과 인간의 대립, 아니 일방적인 지배 관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뒤집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비정규직과 실업이 필연인 청년들의 사회에 살고 있고, 절반이 빈곤을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사회에 살고 있다. 가진 자들과 기업의 이익상의 부담은 회피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마땅한 몫과 조치는 지급되기 거부된다. 덕분에 우리의 생명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충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 위치해 있고, 조선소에서든, 전철역 스크린 도어에서도 ‘비용 절감 탓에 예정된 사고였다’는 문장은 몇지 않고 계속된다.

영화에서 하정우는 재난 속에서 어떻게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 그를 잊는 순간,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우리를 이미 죽은 자 취급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존재를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리고 저기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영화 속 하정우처럼 이곳에 ‘혼자’ 갇힌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보**